

정찬주 지음/작가정신 펴냄/전 7권

“이순신은 好佛敎의 대표적 무장”

백성과 함께한 인간 ‘이순신’ 그린 대하역사소설, 〈이순신의 7년〉펴낸 정찬주 작가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싸움이 한창 급허니께 내가 죽었다는 말을 당최 허지 말으야 혀” 이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은 표준어로 다시 바꿔 들으면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금방 고개가 끄덕여 질 것이다. “내 죽음을 헛되이 알리지 말라”이다. 그렇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서 전사하며 남긴 유명한 말이다. 사투리로 바꾸어 쓴 흥미로운 부분은 충청도 아산 지역 방언이다. 〈천강에 비친 달〉 등 불교적 사유가 배어 있는 글쓰기로 오랜 기간 소설과 명상적 산문을 발표한 작가 정찬주가 이번에는 이순신에 관한 대하 역사소설을 펴냈다.

정찬주 작가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서 “서울 건천동서 태어나 여덟 살부터 서른두 살에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충청도 아산서 살던 이순신이 서울말을 쓰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것은 이 소설의 근간을 이루는 호남 의병군들이 당연히 호남 사투리를 쓰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소설이나 영화 등 임진왜란을 무대로 하고,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그동안 많이 나왔다. 임진왜란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특별한 시기였고, 이순신은 그 안에서 빛나는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찬주 작가가 그려낸 이순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무결한 ‘영웅 이순신’이 아닌, 백성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인간 이순신’이다. 충청도 아산 사투리로 이야기하고, 용맹함 이면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망설이는 인간 이순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묘사했다.

실제로 정 작가는 “나는 신격화된 이순신이 아니라 백성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충청도 아산 사투리로 말하는 인간 이순신을 그려낼 것이다. 임금과 대신들은 부끄럽게도 의주로 도망쳤지만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당시 백성들의 분투를 복원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헌정하는 소설이 되게 하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연재할 당시부터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은 이 소설은 정찬주 작가만의 심오한 사유와 유려한 필치를 통해 이순신이 1591년 전라좌수사로 부임해 1598년 노량해전에서 최후를 맞기까지 ‘인간 이순신의 삶과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새롭게 조명한다. 전남 도청의 연재는 2001년 낙향해 전남 화순에 머물던 정 작가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

정 작가는 “2014년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화순의 내 작업실에 찾아와 호남을 대표할만한 작품이 없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해 이순신을 연구중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쓰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었다”며 “당시 이낙연 의원이 전남 지사에 당선된 후 다시 내게 소설 연재를 부탁해 매주 1회씩 원고지 50~100장을 썼다. 총 1만장은 되는 걸로 기억한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소설 연재는 아마 내가 처음인걸로 안다”고 설명한다.

정찬주 작가가 그려낸 이순신의 면모는 지극히 인간적이다. 충청도 아산 사투리로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변방 장수로서 회한에 젖으며, 뛰어난 전략과 용맹함 이면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면의 밤을 보내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이런 이순신의 모습은 충청도 아산 사투리에 묻어나면서 친근하고 인간미 넘치는 인물로 되살아난다. 또한 정 작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료에 따라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몸 사리지 않고 분투한 백성들에 주목해, 명량 해전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린 조선 수군이 기사회생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소설은 선비, 장수와 의병, 승려, 이름 없는 민초들의 자취를 샅샅이 발굴해 그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이들의 활약상을 하나하나 복원해 써 내려감으로써 시대를 떠받든 조선 백성의 삶을 재조명하고 나아가 임진왜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이 책이 무엇보다 소설을 뛰어넘은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도 주목해할 점이다. 10여 년의 치밀한 취재와 철저한 고증이 바탕을 바탕으로 직접 발로 현장을 누비고, 역사서는 물론 문중 족보까지 샅샅이 뒤져가며 기나긴 준비 과정을 거쳐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당시 군 체계 및 화살의 종류와 쓰임새, 무기나 장비들, 거북선 건조 과정, 전술 변화, 조정 대신들의 당파 싸움 및 명나라와의 역학관계 등 전쟁과 관련된 것은 물론 의식주 문화를 핍진하게 묘사하고, 여러 지방, 특히 호남 사투리와 음식과 풍속에 관한 방대하고도 풍부한 이야기들을 펼친다. 수군 부대와 피난민들, 농민들의 생활상과 세시풍속 및 통과 의례에 대한 세밀한 서술을 보노라면, ‘16세기 호남의 풍물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게다가 호남 방언뿐만 아니라 팔도 지방어가 모두 등장하며, 개비, 부룩소, 뿌사리 등 멸실된 수많은 방언들의 재현은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문체, 날카로운 비유와 농익은 익살과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특히 이번 소설에서는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 소재의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서 볼 수 없던 의승장과 의승 수군의 활동 등 불교 관련 이야기도 주목할 만하다.

경상도와 전라도 좌우수영에 의승군 머무는 의승청 존재사실 밝혀내
저자, 자운 대사를 삼혜 스님으로, 옥형 대사를 의능 스님으로 추정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진에서 초파일때 의승청 찾아 등 단 장면도 묘사

정 작가는 전라좌수영에 의승군이 머무는 의승청이 있음을 밝혔다. 정 작가는 “〈난중일기〉에 의하면 의승청의 우두머리를 이순신 장군은 수승(首僧)이라 불렀다. 따라서 경상도와 전라도 좌우수영에는 의승청이 있음을 추청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은 해전에 참전하는 수승을 의승장이라 했고, 육상에 남아서 방어 작전을 하는 수승도 의승장이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순신 장계에는 의승장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광주 출신의 신해, 순천출신의 삼혜, 고흥 출신의 의능, 광양 출신의 성휘 등이 그들이다. 특히 〈난중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자운 대사를 삼혜 스님으로, 옥형 대사를 의능 스님으로 추정한다”며 “의능 스님은 이순신 장군이 순절하자 여수 석천사서 천도재를 지낸 인물이며, 이 근거는 여수 향토지와 석천사 주지 스님에게도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정찬주 작가는 흥미로운 사실도 하나 더 소개했다. 정 작가는 “지금까지 거북선 건조 과정은 이순신 장군과 나대용 군관만 거론 됐는데, 삼혜 스님의 역할도 소설속에 삽입시켰다. 이는 〈여수 여천향토지〉에 삼혜 스님이 이순신 장군의 자문 역할을 했고, 거북선 모양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참고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외에도 책 속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초파일에 관등했다는 〈난중일기〉의 기록대로 한산도 진에서 초파일 행사때 의승청으로 찾아가 등을 달아놓고 기도했다는 장면을 소설은 묘사한다. 이에 대해 정 작가는 이순신 장군이 호불교(好佛敎)의 무장이었음을 방증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문학평론가 홍기삼은 이 책 말미에 수록된 〈작품해설〉에서 이 소설의 가장 주된 특징으로 방언을 비롯한 언어 사용의 기법을 꼽는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소설서 주인공이 권력과 신분 상징인 계급 언어 대신 고향 사투리로 시종일관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 소설이 갖는 독특한 서사 책략에 주목한다. 이어 홍기삼씨는 “이는 권력 사회를 동경하지 않는 이순신의 탈권위적 태도와 백성의 신하로 살겠다는 단호한 결심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로써 권력 언어가 아닌 민중의 언어, 획일화되고 지배적인 단일성이 아닌 다성성(多聲性)을 통해 소설의 양감과 질감은 물론 주제적 깊이까지도 획득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작가는 ‘임진왜란’이라는 거시적 사건 뒤에 자리한, 미시적 삶과 일상에까지 조명을 비춰 하나의 ‘온전한’ 역사를 완성한다. 이는 사건과 자료의 충실한 재현서 나아가 과거의 경험에 내포된 ‘진실’에 근접하는, 리얼리즘적 역사소설의 성취이자 작가의 끈질긴 열정과 의지로 집약된 의미 있는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은 역사적 외침의 피해가 막대한 참혹한 전쟁이었다. 국토 전체가 황폐화되어 경작지는 절반 이상으로 줄었으며, 수많은 백성들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 갔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약탈되거나 손실된 문화재도 상당했다. 임진왜란은 조선 전기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으며, 동아시아 정세를 급변시킨 국제전이었다. 일본은 히데요시가 죽어 에도시대가 열리고, 명은 가혹한 수탈로 인해 농민 반란을 일으킨 이자성의 난을 거쳐 결국 청나라에 정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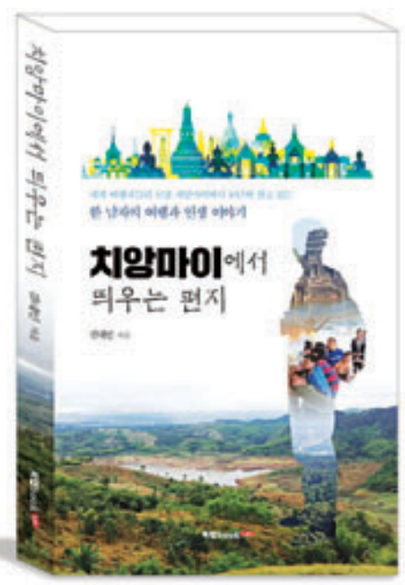
군사력의 절대적 열세에도 조선 수군의 승리로 막을 내린 임진왜란은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열강들의 알력 다툼에서 자유롭지 못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소설은 조선과 왜, 명나라 군대가 함께 싸운 한중일의 각축전이자, 동아시아 국제전의 양상을 띤 임진왜란을 마치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사실감 있게 묘사하되 임란을 둘러싼 나라 안팎의 정세를 균형감 있게 고찰하여 보편적 시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혼돈 속에서 위세 당당하게 자리한 이순신과 백성들의 의기와 충절이 더욱 감동적으로 와 닿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소설은 절대왕조를 중심으로 한 공고한 신분제 사회인 조선시대에 전투에 참가조차 할 수 없던 양민이나 천민, 집종, 백정, 관노 모두 똑같이 장수의 통솔을 받고 지시를 수행하는 모습으로 그린다. 이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나라를 구하려는 백성들의 투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 됨됨이를 존중하는 이순신의 가치관과도 통한다. 이순신이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보다는 효율과 합리를 앞세워 부하 장졸들과 협력해 거북선을 비밀리에 건조하는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 또한 수평적이고 유연한 이순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지역주의를 넘어서려는 의지 또한 인상적이다. 영남, 경기, 충청, 관서, 관북을 왜군이 휩쓸고 있을 때 호남인들과 단결해 연달아 왜군을 격파하는 승전을 이루어내면서도, 호남, 영남의 구분 없이 나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는 태도는 의(義)를 위해 장수가 된 사람, 바로 이순신의 올곧은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 작가는 〈이순신의 7년〉 7권을 완간하면서, “백성들의 충의는 넘쳤지만 그것을 담아낼 임금이 없었다”라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이 책은 한 영웅의 전기가 아닌, 한 시대를 살아낸 이들과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부침을 겪는 우리 모두에게 바치는 소설이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보전하는 데 급급한 선조, 그와 야합하는 조정의 무리를 바라보면서 국가란 과연 무엇이며, 한 나라의 군주가 지녀야 할 책무와 사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럼에도 국난을 이겨내겠다는 불굴의 민족혼과 이를 섬겨 마지않는 이순신의 삶을 통해서, 유교적 충효 사상 아래 맹목적 복종을 강요받던 시대에 어떻게 그토록 투철한 애국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감탄하게 된다. 7권에 달하는 대장정의 끝에서, 이 소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정찬주 작가의 묵직한 질문이자 울림이다.

정 작가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원래 내 소설의 키워드는 1권 표지에 나왔듯이, 이순신은 임금의 신하가 아니라 백성의 신하다. 그러니까 백성의 언어인 향토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임진왜란에 있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가장 거대한 담론이 될 수 있는데, 스님이고 재야 선비고 모든 백성들의 충의는 넘쳤지만 그것을 담아낸 임금, 혹은 지도자가 없었던게 임진왜란의 비극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과 기둥 하나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사주 명리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주공부의 바르고 가장 빠른길!

맹파명리!

《맹파명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 · 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맹파명리》를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명리학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을 회복할 것이다.



명불허전, 최고 절정의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저자 직강)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 강의장소 : 1호선 종로3가 2번 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게 좌측 영흥빌딩 502호
-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

Daum 카페 : “맹파명리” 검색

- 직접 택배로 받아 보실분은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송금 바람.
-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